

사회

“이제야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다”

‘피겨여제’ 등극 김연아 인터뷰

26일(한국시간) 전 세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겨여제’에 등극한 김연아(20·고려대)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시상식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언제 울었느냐는 등 쾌활한 미소로 생글거렸다.

평생의 목표였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는 “울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경기를 마치자 해냈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해져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 같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신 기자들의 관심에 미소로 답변을 이어가던 김연아는 영어로 말해 달라는 질문에 “I can't believe it (정말 믿을 수 없다)”이라며 유창하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김연아와 일문일답.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 소감은?

▲오랜 기간 연습했는데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주고 금메달을 따서 정말 기쁘다. 쇼트프로그램과 프리프로그램을 모두 클린 프로그램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점수도 너무 잘 나왔다.

-올림픽에 첫 출전인데 긴장하지 않았나?

▲그동안 국제대회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특별한 올림픽이라는 긴장감이 없었다.

-언어를 마친 뒤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왜 울었는가?

▲그동안 경기를 치르면서 다른 선수들이 우는 모습을 많이 봤다. 왜 우는지 궁금했는데 나는 이번에도 울지 않을 줄 알았다. 근데 왜 울었는지, 내

생각에는 이제야 해냈다는 생각이 들자 속이 시원해져 눈물이 나온 것 같다.

-쇼트프로그램에 이어 통프로그램에서도 ‘클린 프로그램’을 했는데 자신있었나?

▲통프로그램에서 ‘클린 프로그램’을 한 것은 아주 오랜만인 것 같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지만 그때 통프로그램은 클린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 때에는 클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언인가?

▲자금은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 시간이 좀 더 지나 뒤 다음 목표를 생각하겠다.

-차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3월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밴쿠버 일정이 마무리되면 토론토로 돌아와 대회를 준비할 것이다.



김연아가 26일 오전(한국시간) 피겨 프리스케이팅이 열린 캐나다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시상식 후 금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마오는 고개를 숙인채 은메달을 쳐다보고 있다.

나원침 (8048) 김중두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세계 언론들도 극찬

김연아가 26일(이하 한국시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고점(228.56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긴급 기사를 송고한 뒤 김연아의 완벽한 연기에 최상의 찬사를 쏟아냈다.

▲일본 교토통신=영문 기사에는 ‘아사다는 김연아의 벽을 넘을 수 없

었다’고 쓴 뒤 ‘대승을 장식한 김연아는 마치 남극의 해변에서 피나 콜라다를 마시는 것처럼 손쉽게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AFP=“무결점” 김연아가 그녀의 이름값을 지키며 금메달을 땀

日 교토통신 “마오, 연아의 벽 넘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지 거헌의 피아노협주곡 F장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악보 위의 음표처럼 은반 위를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표현을 썼다. AP는 “마오(일본)의 김연아에 대해 ‘김연아 다음에 연기를

펼쳐야 했던 마오에게는 모든 것이 불공평했다. 도저히 더 잘할 수 없었고, 근접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조지 거헌의 피아노협주곡 F장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악보 위의 음표처럼 은반 위를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표현을 썼다. AP는 “마오(일본)의 김연아에 대해 ‘김연아 다음에 연기를

펼쳐야 했던 마오에게는 모든 것이 불공평했다. 도저히 더 잘할 수 없었고, 근접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조지 거헌의 피아노협주곡 F장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악보 위의 음표처럼 은반 위를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표현을 썼다. AP는 “마오(일본)의 김연아에 대해 ‘김연아 다음에 연기를

▲야후재팬=밴쿠버 올림픽 메인 화면에는 ‘세계 역대 최고점 압승’

▲야후재팬=밴쿠버 올림픽 메인 화면에는 ‘세계 역대 최고점 압승’이라는 제목으로 김연아의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야후재팬=밴쿠버 올림픽 메인 화면에는 ‘세계 역대 최고점 압승’

▲야후재팬=밴쿠버 올림픽 메인 화면에는 ‘세계 역대 최고점 압승’이라는 제목으로 김연아의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광주 개나리 내달 18일 ‘꽃망울’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시기는 예년보다 약 5일 이르고 작년보다는 약 3일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 개나리는 3월 18일, 진달래는 3월 22일께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개나리는 3월 11일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해 남부 및 영남 동해안 3월 13~20일, 중부 및 영동 지방 3월 21일~4월 1일, 중부 내륙 및 산간 지방은 4월 2일 이후에 각각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Today's weather forecast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Weather forecast for the next few days, including high/low temperatures and precipitation chances.

경찰 금은방 3인조 강도 주범 검거까지..

“고향 찾아온다” 예감적중 32일간의 추적 끝 개가

“김OO!”. 지난 25일 오후 7시 45분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동 J우체국 앞. 영광경찰서 형사 2명이 검정색 모자를 쓴 채 J우체국 현관출구에서 현금 100만원의 배낭을 들고 나온 영광 금은방 강도사건의 주범 김모(42)씨를 덮쳤다.

김씨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형사들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 15분께 영광군 영광읍 B금은방에 침입해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빼앗아 달아난 뒤, 32일 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영광 금은방 3인조 강도사건’ 주범의 도주 행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김씨의 고향이 동두천시인데다 이곳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 반드시 고향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과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이었던 점을 감안한 정

확한 판단이 주효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김씨가 과거 경기도 동두천·의정부·포천시 일대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러온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김씨가 고향에 도착한 뒤, 32일 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영광 금은방 3인조 강도사건’ 주범의 도주 행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김씨의 고향이 동두천시인데다 이곳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 반드시 고향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과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이었던 점을 감안한 정

삼일절 아침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

“교통불편 양해 바랍니다”

‘호남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3·1절전국마라톤대회가 3월1일 오전 8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남평사거리 구간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Table with 2 columns: Start/End time and Route description for various marathon segments.

대회 진행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스로 이용되는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시내버스 10개 노선이 조정된다.

임자농협장 후보 5명 오늘 영장심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열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오전 11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김모(70)씨로부터 월세 대신 50만원 상당의 캐피탈 승용차를 건네받은 뒤, 소유권이전 없이 12월10일 김모(57·동구 산수동)씨에게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열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오전 11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김모(70)씨로부터 월세 대신 50만원 상당의 캐피탈 승용차를 건네받은 뒤, 소유권이전 없이 12월10일 김모(57·동구 산수동)씨에게 4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차량 도난 신고 40대 성추행 들롱

○여중생 2명과 성관계를 맺으려던 40대가 피해여중생들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사실을 신고했다가 범행이 들롱.